

〈특별대담〉

나는 왜 한국문학 연구자가 되려고 하나**,**

주 최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일 시 : 2022년 11월 22일, 16:30-18:00

장 소 :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 6층 대회의실

참석자 : 오무라 마스오(전 와세다대학 명예교수), 최원식(인하대학교 명예교수),

심원섭(통역, 전 도쿄대학 교수)

정 리 : 윤미란(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감 수 : 심원섭(전 도쿄대학 교수)

사회자 :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선생님께서는 일본 와세다대학 정치경제 학부를 거쳐 도쿄도립대학대학원에서 중국문학을 전공하셨고 와세 다대학 어학교육연구소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가르치셨습니다. 현재 와세다대학 명예교수이십니다. 최원식 선생님께서는 서울대에 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인하대 한국어문학과에서 한국현대문 학을 가르치셨습니다. 현재는 인하대 한국어문학과외의 명예교수이십 니다. 두 분 모두 일본인으로서 혹은 한국인으로서 한국문학 연구에 매진하신 분들이시고 저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신데 오늘

*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1933-2023) 선생님은 2007년 봄, 인하대학교대학원에서 초빙교수로 인 하대학교와 인연을 맺으신 이래 인하대 구성원들에게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께서는 마지막으로 한국땅을 밟고 싶다시며 지난 2022년 11월 내한을 계획하셨을 때도 인하대 방 문을 일정에 넣으셨고 이에 선생님의 뜻을 받들고자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주최로 본 대담이 기획 되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직 한국문학 연구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시며 행사의 주제를 “나는 왜 한국문학 연구자가 되었는가”에서 “나는 왜 한국문학 연구자가 되려고 하나”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지난 대담의 내용을 기록하여 남김으로써 오무라 마스오 선생님의 타계를 애도하며 선생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이어가고자 합니다.

** 이 특별대담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 번호)(NRF-2022S1A5C2A02092184).

두 분의 특별대담을 열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오늘 1시간여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들로 재미있는 대담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이크를 최원식 선생님께 넘기겠습니다.

최원식 : 먼저 오무라 마스오 선생의 용재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덕분에 인하대에서 이렇게 다시 뵈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또 그 덕분에 우리 임학성 소장을 비롯한 인하대 동료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더욱 좋습니다.

오늘 저는 미리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를 여쭙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무라 선생의 스승이신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 둘째는 오늘 마침 윤동주 시인의 조카 윤인석 선생까지 오셔서 더욱 뜻깊은데, 윤동주, 셋째는 김학철, 이렇게 세 분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통역을.

오무라 마스오 : [한국어로] 예, 예. 알아들었습니다.

최원식 : 첫 번째, 다케우치 요시미 선생에 대해서 통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심원섭 선생이 통역을 해주세요. 다케우치 요시미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일본 지식인의 한 분입니다. 특히 그분의 『노신(魯迅)』은 최고의 책입니다. 『노신』 중에서 지금도 잊지 못하는 말은 “과거에도 투항하지 않았고 미래에도 아첨하지 않았다”입니다. 이걸 제 학

문의 지침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지침이기도 한데, 아마도 다케우치 요시미 선생이 노신을 빌려서 당신의 사상적 입지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처럼 치열한 중도의 자리에 뿌리박은 도심(道心)이 다케우치로 하여금 일본의 국가주의를 비판하고 또한 서구의 근대주의를 동시에 부정하면서 아시아 속에서 다른 근대를 모색하는 지적 모험을



최원식(인하대 명예교수)

가능하게 한 것일 겁니다.

그런 다케우치 선생과 사제 관계를 맺으신 오무라 선생이 더욱더 저에게는 가깝게 느껴지는데, 오무라 선생은 다케우치 요시미 선생을 언제, 어떻게 만나셔서 어떤 가르침을 받으셨는지요? 아울러 다케우치 요시미 사상에서 제가 아쉬운 것은 중국만 있고 조선 또는 한국이 누락돼 있다는 점입니다. 뛰어난 학자들은 잘 알지 못하면 얘기 안 합니다. 원래 중국문학 전공자이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하니까 선불리 얘기를 안 하셨을 수 있는데, 혹시 강의 중이나 또는 사석에서 조선/한국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있으셨다면 그것을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무라 마스오 : 저희는 보통 “코상”이라고 부릅니다. 다케우치 요시미 말고 ‘코(こう)’, 다케우치 코

최원식 : 존경할 때는 한자를 훈독이 아니라 음독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오무라 마스오 : 보통 뭐랄까 정식 이름하고 통용하는 이름이 조금 달라요. 다케우치 코 선생과의 교분 시간은 길었습니다만 교실에서 배운 건 3년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케우치 코 선생은 매우 복잡적이어서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데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케우치 선생은 민주적인 아시아주의 보스라고 부르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보스라고 하면 안 좋은 이미지가 있으나 지도자나 선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보스입니다.

아시는 대로 다케우치 선생의 학부 졸업 논문이 『노신론』이었습니다. 『노신론』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노신 연구자들이 보면 이것저것 틀렸다고 지적하지만 당시 학생, 대학 4학년으로서 문제는 태도, 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봐도 보통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케우치 선생은 학생시절부터 『중국문학월보(中国文学月報)』를 내서, 나중에 『중국문학』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회보를 창간해서 활



오무라 마사오
(大村益夫, 전 와세다대 명예교수)

등을 했고, 그다음에 194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대동아문학자대회가 개최되는데 전혀 출석한 적이 없습니다. 참석 여부는 개인적인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네토 게이슈(実藤惠秀), 오카자키 도시오(岡崎俊夫), 마스다 쇼(増田涉, 마스다 와타루), 이즈카 아키라(飯塚朗) 등 다른 멤버들 중에는 참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네토 게이슈 선생은 어학부

에 있었는데 어학부에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사네토 게이슈 선생은 대동아문학자대회에 대해서 썼는데 왜 이 대회는 중국인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데 일본어만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1937년부터 3년간 중국에 갔었습니다마는 거기서 무슨 활동을 했는가는 일체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절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노신 관계 연구만은 하고 있었고 중국에서는 노신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몇 번이고 와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전부 거절하였고 전후, 1945년 이후에도 중국에 일절 건너간 적이 없습니다. 소위 일본의 진보주의자라고 불리는 분 중에 그런 요청을 받아서 중국에 안가신 분은 없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독특한 발상의 하나이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국가주의자, 민족주의자로서의 입장을 피하려고 노력하셨고 그리고 자신들이 희생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침략을 했다는 그런 입장에 거리를 두고 절대적으로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절대적으로 공산당을 싫어하는 그런 입장

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 공산주의가 민족주의를 경시해 온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1961년인가 1962년에 일본조선연구소가 성립이 됩니다. 이것은 1965년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운동의 선두에 서 있던 그런 조직입니다. 다케우치 선생은 일본조선연구소의 창립회원으로서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창립회에 참석을 했지만 그 이후로는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조선연구소는 ‘일본’이라는 간판을 걸고 일본인이라는 입장에서 조선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일본사회당입니다. 실무 쪽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일본공산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조선연구소는 북한에서 보내오는 신문, 잡지 기사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내부에 많은 분회들이 있었는데 저는 어학분과와 문학분과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한국]말이 조금이라도 가능한 사람에게 번역을 시켰는데 북한에서 보내오는 문건을 번역하여 제공하라,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글을 쓸 것이다 라고 하여 저에게 맡기려고 했습니다. 저는 거부했습니다.

다만 어학에 관련해서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는 응해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조선연구소 사무소는 경사가 급한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라면집 2층에 있었습니다. 이런 교실[대담장소를 가리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를 모색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수가 많았지만 운동이 격화됨에 따라 점점 줄어갔습니다. 초급은 간노(菅野裕臣, 간노 히로오미) 상이라고 하는, 나중에 도쿄외국어대학 교수가 된 분이 맡으셨고 제가 중급을 담당했는데, 초급이 먼저 수업하고 끝나면 뒤이어서 중급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간노 상이 교대를 하면서 지나치실 때 이런 신호[손가락 두 개를 펴 보이면서]를 하셨는데 이 신호는 승리의 브이(V)가 아니고 “오늘 학생은 두 명이였다.”입니다.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었습니다.

일본조선연구소는 월간 잡지를 발간하고 있었습니다. 이 잡지는 현재도 복각판이 남아 있어서 전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잡지는 뒤에 성격이 변화해 갔습니다. 반(反)북한으로서의 성격을 띠어갔습니다. 사람도 바꾸고 지도자도 바꾸고 이름만 일본조선연구소였습니다.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연구소 이름마저 코리아연구소로 바꿨습니다. 코리아연구소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반공주의자들이었습니다.

다케우치 코 선생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다케우치 선생은 이런 연구소하고는 별개로 거리를 두었고 한국에 대해서 그 자신은 한국어를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권유(朝鮮語のすすめ)』라는 짧은 글을 썼습니다.

1960년 안보투쟁 당시 그는 대학을 그만둡니다. 이때 총리가 기시 신스케(岸信介, 기시 노부스케)로서 그는 ‘만주’출신으로 대신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기시 신스케의 손자가 최근에 사망한 아베입니다.

다케우치 선생은 술에 취하시면 슬리퍼를 벗어서 바닥을 치면서 “하이, 하이” 하고 외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서부극을 좋아하셨습니다. 왜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주민을 학살하는 게 서부극이라서 다케우치 선생이 서부극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서부극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개척정신에 끌리셔서 그것을 이렇게 재현하셨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케우치 선생의 수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시했습니다. 넓은 활동을 펼친 분이요 또 저작집도 방대했던 분이니까 활동력이 문화, 정치에 이르기까지 워낙 넓은 분이었던 만큼 세밀하고 정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로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케우치 선생은 1960년 퇴직하신 후에 시사적인 발언은 삼가셨습니다.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시사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대신에 『중국고전전집』 전13권을 65년부터 67년에 걸쳐 내셨고 『중국』이라는 잡지도 발간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고전연구회도

운영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다케우치 선생의 제자여서 다케우치 선생과 마쓰에다(松枝茂夫, 마쓰에다 시게오) 선생에게 떠밀려서 이파트에 방 하나를 빌려서 거기서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고전을 토론해서 완성되어 나온 것이 『중국고전전집』 13권입니다. 1967년에 출판된 책인데 지금까지도 인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자사전 형식이라 초라한 것인데도 인세가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역시 중국 고전에 대한 일본인의 애착이 작용하고 있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이라는 잡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사적인 발언은 하지 않는 대신 지금까지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 우리가 몰랐던 것에 착목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썬법, 이일은 이, 이이 사, 이삼 육 하는 구구단이 있는데, 한국에도 있습니다. 이 구구단 썬법이 중국의 그것과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일레이지만 이런 것들을 『중국』이라는 잡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 : 두 번째, 오무라 선생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의 하나가 바로 윤동주의 한국 귀환입니다. 오무라 선생은 1985년 윤동주의 묘를 찾아왔습니다. 그 시절 한국은 6·25 이후 중국과 완벽하게 단절돼 있는 데 반해 일본은 1972년에 중일 수교가 이루어져서 중국을 방문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잘 활용해서 잊혀진 묘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묘도 묘지만, 문학연구의 출발인 텍스트, 그동안 방치된 윤동주의 텍스트를 본격적 원전비평을 통해서 복원했다는 게 오무라 선생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연구에 있어서 말이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윤동주 텍스트의 복원이야말로 한국문학에로의 귀환을 상징한다고 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질문입니다. 선생이 찾으신 윤동주 묘비에 묘비문을 짓고 글씨를 쓴 사람의 이름이 김석관이라는 분이던데, 그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서, 그 김석관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윤동주의 쟁점이

많지만, 윤동주는 저항시인인가, 아닌가가 핵심적 쟁점의 하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무라 선생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무라 마스오 : 여기 계신 윤인석 선생께서 잘 알고 계실텐데 김약연 선생의 동생이 윤동주의 모친이십니다. 윤동주가 명동소학교에 다니게 되는데 명동소학교의 창시자가 김약연 선생입니다. 명동학교는 소학교와 중학교가 붙어 있습니다. 가운데가 나뉘어서 왼쪽은 소학교, 오른쪽은 중학교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마도 김정규(金定奎)라는 분이 김약연 선생과 혈연관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규의 아들이 김석관, 관 자가 너그러울 관(寬) 자와 볼 관(觀) 자, 석 자가 주석 석(錫) 자입니다. 관 자는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본명은 어느 쪽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金錫寬, 金錫觀] 모두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원식 : 묘비에는 주석 석 자에다 볼 관인데, 너그러울 관 자도 썼군요.

오무라 마스오 : 윤동주가 다녔던 명동소학교에는 창립자인 김약연의 동생이 있습니다. 윤동주가 사망할 당시 명동소학교의 교감, 교장 다음으로 높은 사람, 학무와 학생감독직으로 재직하고 있던 분이 김석관입니다. 정식으로는 학감이었습니다. 이분이 [묘비에] 문장을 썼기 때문에 아마 혈연관계가 있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최원식 : 이거 윤인석 선생님 모르세요?

윤인석 : 저도 정확한 건 잘 모르겠고 이제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그 문서를 쓰셨던 김석관이라는 분의 손자되시는 분이, 오무라 선생님이 윤동주의 묘와 묘비를 발견하고 탁본을 떴으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1990년대 초반에 대관고등학교 교감하시던 선생님이 당신의 할아버지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이것저것 바쁘다 보니까 정확한 계보나 이런 걸 추정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식 : 윤인석 선생이 추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묘비문을 쓰고 글도

쫓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거든요.

저항시인에 대해서는?

오무라 마스오 :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항시인이면서 서정시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저항시인이다, 서정시인이다 어느 한 편으로 규정 짓는 것은 무리입니다. 나누는 발상 자체가 좀 넌센스입니다.

최원식 : 세 번째 오무라 선생님의 업적이 많으시지만 또 하나의 업적은 김학철 선생의 한국 귀환입니다. 저는 해방 직후 잡지에서 김학철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몇 보고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다음에 홀연 사라져서 아마도 월북했겠다 싶었어요. 그리곤 잊었는데, 오무라 선생이 그 김학철을 우리와 이어주었어요. 감동이죠. 황석영 작가는 김학철의 귀환은 60년대에 요산 김정한의 귀환과 맞먹는다고 했어요. 정말 정확한 말이에요. 식민지 시대의 젊은 프로 문학을 대표했던 김정한이 사라졌다가 66년에 『모래톱 이야기』로 귀환했을 때 실종됐던 한국프로 문학이 70년대 민족문학, 민중문학과 접속했습니다. 그에 못지않은 귀환이 바로 중국에 갇혔던 김학철을 발견하여 다시 한국문학과 연속시킨 사건입니다. 오무라 선생께 이 점에서 감사해 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김학철 선생에 대한 강렬한 인상은 한 통의 편지입니다. 선생은 끝까지 본명을 밝히지 않으셨는데 저는 문학사가니까 알아야 했어요. 특히 선생이 어떤 출신인지가 궁금했어요. 소설에서는 원산의 가난한 집안이라고 설정됐는데 의문이 들었지요. 단서는 이 선희(李善熙, 1911~?)라는 작가입니다. 김학철 집안과 가까운 그녀는 이화여전 출신으로 해방 직후 월북했는데, 원산에서 성장했어요. 선생 역시 모모한 집 아들인 게 분명해요. 김학철 선생이 저를 총애했어요. 그래 당돌한 편지를 드렸는데, 아주 호쾌한 답장이 왔어요. 원산포가 있는 그 지방의 중심지는 덕원도호부예요. 인천도호부의 포구가 제물포인데 일본이 제물포로 들어왔듯이 일본이 원산포로 들어와서 덕원이 몰락했어요. “나는 덕원의 착취 계급의 일원인 이방의 후손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양반의 후손이라고 그러

지, 더구나 이방은 아전인데, 아전이라는 건 절대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선생은 “나는 덕원 이방의 후손”이라고 당당히 밝혀요. 대단합니다. 덕분에 신분과 본명 홍성걸도 밝혀졌어요.

그 편지가 내 보물 편인데, 김학철 선생은 진짜 자유인이예요. 도 대체 거리낌이 없어요.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김학철이라는 분은 정말 신비로워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제시대에는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하고, 남한으로 귀국해서 미군정과 그 군정에 유착한 남한 지배세력에 반항하고, 월북해서는 또 김일성에 대해 반대하고, 김일성 얘기도 직접 들었는데 처음에는 친했대요. 같은 중국공산당에서 일했잖아요. 김일성하고 별 어지게 된 얘기도 재미있어요. 김일성이 선생을 금강산 근처 지방으로 현지 사업하라고 보냈는데 거기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 목사님은 훌륭한 분이라 어떻게든지 잘 설득해서 인민의 편에 서게 하려고 애를 썼대요. 그래 김일성에게 하소연 비슷하게 했는데, 어느 날 다시 와서는 그 목사 어찌됐냐고 물어 그저 그런 상태라고 하니, 그거 뭐 처치하지 뭐 비슷하게 말했나 봐요. 그걸 듣고 깜짝 놀랐대요. 우리 공산주의자는 이런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며 깊은 의문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결국은 또 중국으로 간 거죠. 근데 중국에 가서도 또 문제를 냅니다. 선생은 중국공산당의 원로잖아요. 고난의 시기에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서 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함부로 못한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아시다시피 선생은 중국에서도 공산당을 비판해 감옥에 오래 갇혔어요. 그렇게 끝까지 싸웠는데도 끝내 살아난 것은 선생이 중국공산당의 원로란 점도 작용한 거지요.

『20세기의 신화』는 수용소문학으로 최고예요. 중국에서 출판을 못해서 창비에서 출판을 하고 우리가 꽤 의미 있는 출판기념회를 열어 드렸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답사를 하시면서 지금 여기 중국공안이 와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출판하고 다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른

다고 말씀하셔서 장내가 갑자기 숙연해졌어요. 그런 분은 빈 적이 없어요. 어쩌면 권력에 대해서 그처럼 끝까지 저항을 하셨는지. 김학철문학의 근본정신이 무얼까? 당신은 “나는 맑스주의자요, 공산주의자요.”라고 말씀하시지만, 물론 아주 고매한 사회주의자인데, 기본은 저는 아나키즘이라고 봐요. 『걱정시대』에 청년 무정부주의시대가 잘 나와 있잖아요. 중국 처음에 가서도 아나키스트였죠. 아나키즘은 사회주의의 양심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그는 공산당으로 진화한 뒤에도 끝까지 아나키스트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회주의자, 민주적 사회주의자입니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분리되지 않았던 분이었구나라고 감탄합니다. 오무라 선생은 김학철 선생과 교분이 두텁습니다. 김학철 선생을 일본에 초청해서 김학철 선생으로서는 매우 뜻깊은 일본 여행도 하신 셈입니다만, 김학철과 그의 문학에 대해 오무라 선생의 말씀을 청합니다.

오무라 마스오 : 창작과비평사에서 『20세기 신화』가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중국에서 광고는 나왔습니다만 실제 책은 아직 출판되지 않았고 미래에도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창비는 대단히 좋은 일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아나키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규정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학철 선생 본인이 말한 대로 본인이 지향한 것은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자”입니다. 『20세기 신화』는 모택동에 대한 비판입니다. 김일성에 대한 비판도 물론 있습니다.

김학철 선생이 글로 쓴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전후에 한 번 평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자네가 올 곳이 아니니 빨리 돌아가라.”라며 입국을 거부당해서 다시 회항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김학철 선생 여동생의 남편이었습니다. 최원식 선생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수만 명이 죽었는데 김학철 선생이 문화대혁명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조선 국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가 중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85년입니다. 외국인을 함부로 처벌하는 것은 국제적인 문제로 발전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중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10년간 조선 국적인 채로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이 기간에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처형당했을 것입니다.

김학철 선생 문학의 최대 특징은 저항과 유머에 있습니다. 김학철 선생이 쓴 책은 매우 많지만 전집 12권이 연변에서 출판된 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김학철 선생의 작품은 모두 연변 이외의 곳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연변이라는 데는 검열이 있는 곳, 권력이 작동하는 곳입니다. 커다란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전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출판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흑룡강성이나 요령성은 외부의 소수민족이 주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차원에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김학철 선생을 만난 것은 85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에도 그는 매우 심한 감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81년에 10년 형을 마치고 출옥을 해서 자유로운 몸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아, 그리고 원고 『20세기 신화』는 직접 봤습니다. 그때 상권은 일본어, 하권은 한글이었습니다. 재판받을 때 재판관이 “당신은 무죄이기 때문에 석방한다. 그리고 증거 서류가 되는 원고는 불태워버려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김학철 선생은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갈등이 아주 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실제 원고를 저에게 보여주면서 절반은 일본어로 되어 있으니 일본에서 출판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김학철 선생이 정말 괜찮으실까 걱정되었습니다.

『항전별곡』이라는 기록문학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실제 인물들과 이름이 다릅니다. 이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중국학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소설로서의 고안이라기보다는 실제 인물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배려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김학철 선생이 같이 팔로군에서 투쟁했던 동료인 문정일 선생

이 있는데 그는 나중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소설 속에서는 문종삼으로 등장합니다. 『항전별곡』은 흑룡강성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연변에서는 출판이 불가능했습니다. 연변에서는 아직도 감시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 1회 김학철 선생 댁을 방문해서 옛날이야기를 듣기 위해 녹음테이프를 준비해 갔습니다. 그때도 큰길에서 바로 가면 되는 위치였는데도 인쪽 길로 멀리 돌아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큰길에서 바로 가면 문화혁명 때 김학철을 비판했던 작가가 있으니 그 앞으로 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외국인인 저와 접촉한 것을 알게 되면 좋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을 피해서 우회해서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번역을 의뢰하셨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국내에서만 출판을 허가한다는 그런 도장이라고 해야 할까, 인쇄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일본에서 번역하여 출판하는 것이 또다시 김학철 선생께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그런 일을 창비가 한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두려워서 그 일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 네, 오늘 1시간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또 온라인 통해서 듣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오무라 마스오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장내에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좀 받을까요.

심원섭 : 다케우치 요시미 선생이 조선에 대해서 왜 관심이 돼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오무라 선생님께서 답이 없으셨죠. 그걸 한번 여쭙볼까요?

오무라 마스오 : 물론 관심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여쭙 적도 있습니다. 그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아시아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주의라는 것은 또한 복잡합니다. ‘한일합병’[1910년 대한제국의 망국] 이전으로 올라가는데 흑룡회, 대동합방론도 관련 있는데, 이것



좌 - 심원섭 / 우 - 오무라 마사오

은 유럽의 나라들이 아시아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아시아의 여러 국가가 단결하고 투쟁해야 한다는 발상에서 생겨난 다양한 운동조직이었습니다. 그의 편저 중에 『아시아주의』라는 책도 있는데 다케우치 선생은 아시아주의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물론 조선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널리 활동을 했던 다케우치 선생이었지만 [조선]말을 배울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에 대해서 직접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

윤대석 : 윤대석입니다. 제가 선생님의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화면으로 보니까 건강해 보이셔서 정말 기쁩니다. 선생님, 질문드릴 것이 좀 많은데요. 예를 들면 다케우치 선생님이 주례를 하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라든가 김용제(金龍濟, 1909~1994) 시인에 관한 질문 등이 있습니다만, 역시 제일 궁금한 것은 선생님께서 왜 한국문학을 하셨을까, 왜 한국이셨고 그것도 하필이면 왜 문학이셨을까 하는 게 저희들의 가장 궁금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무라 마스오 : 그것은 결국 제가 청조 말기 소설을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해 조계에서 발행되었던 잡지에 실린 소설들에 대한 연구를 좀 했습니다. 청조 말기 소설과 관련하여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 나온 소설을 양계초(梁啓超)가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카이 산시(1853~1922, 東海散士)의 정치소설 『가인지기우(佳人之奇遇)』입니다. 1권부터 16권까지 있습니다. 각 권마다 서문이 붙어 있습니다. 김옥균(金玉均)도 썼습니다. 미우라 고로(三浦梧樓)[1895년 명성왕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을 일으킨 일본 공사]도 썼습니다. 도카이 산시[을미사변 주동자의 하나]도 썼는데 도카이 산시는 바로 이 미우라 고로의 고문이었습니다.

도카이 산시는 12년 동안 16권을 집필하는 사이에 점점 내용이 바뀌어 갑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민족이 함께 단결해서 유럽의 침략을 몰아내자 하는 기조였는데 마지막 16권에 가면 청국을 배제하고 조선을 지원하라는 논조로 바뀌었습니다. 청일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청국을 배제하라는 기조가 이해됩니다. 조선을 도와주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와주느냐 하면 우선 일본의 화폐를 조선에 통용시켜라인데 이는 경제권을 장악해 가려는 것입니다. 양계초는 이것을 번역하다가 16권째에 이르러서 번역을 중단해 버리고 맙니다. 중국 근대사 역시 서구에 계속 당해온 역사의 연속입니다. 양계초는 양계초 나름대로 자기주장을 펴는 수단으로서 소설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월남망국사』 등을 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계초 입장에서는 도카이 산시의 기조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이상은 번역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계초는 거기에 주를 붙였습니다. 주의 내용인즉 조선은 원래 중국의 속국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저자 도카이 산시는 조선은 일본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겨서 양계초는 번역을 중단했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이것을 읽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대체 조선인

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조선에 관해] 문의한이니까 언어 공부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하고 공부했습니다. 어학 공부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도쿄에는 전혀 없었고 간사이(關西)에도 텐리(天理)대학 아니면 공부할 곳이 없었습니다. 텐리대학은 천리교의 보급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유학생 동맹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 4월에 다시 입학하라며 거절당했는데 다음 해가 되어서 또 다시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 동맹에서는 공부할 수 없었고 그 대신으로 소개받은 것이 야간학교였습니다.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밤에 공부할 수 있는 민족학교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학이나 음악, 역사 등을 가르치는 그런 곳에서 비로소 한글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민족교육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일본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좀 힘들었지만 여기서 1년 정도 공부를 해서 그때부터 조금씩 문학쪽으로 영역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유이고 그 다음은 고마쓰가와사건(小松川事件)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마쓰가와는 에도가와구(江戸川区)의 지명입니다. 1958년 사건입니다. 재일조선 고교생에 의한 강간살인사건이었습니다. 범죄자가 18세에서 20세 사이의 미성년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났습니다. 다케우치 선생은 중국사였는데 동료인 동양사 전공, 고려사 전공이셨던 하타다 다카시(旗田巍)라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분이 중심이 되어서 구명 운동, 정황 참작을 해서 목숨만은 살리자는 그런 구명 운동을 펼쳤습니다. 저희 집이 고마쓰가와사건이 벌어진 곳 근처여서 종종 찾아가 실제 생활을 보았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실제 한국인과 접촉했습니다. 범죄자가 된 청소년의 가족, 그 주변. 도쿄 매립지 여기저기에서 노동자들이 살았는데 그 속에 조선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최원식 : 하타다 다카시, 이분은 『젠코(元寇)』라는 책을 썼는데, 젠코는 원나

라 도적, 그러니까 일본을 침략한 여몽연합군(고려와 몽골 연합군)을 일본에서는 겐코, 원구라고 그래요. 이 책은 굉장히 훌륭한 책이에요. 일본은 흔히 여몽연합군의 침략을 신풍(神風), 가미가제(神風)가 물리쳤다고 신화화하는데 하타다는 고려의 항몽전쟁을 비롯한 아시아 각지의 항몽봉기들이 일본의 침략을 저지시켰다는 거죠. 가미가제사관을 해체한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그분이 여기에 나오는 게 감동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자 : 윤대석 선생님의 질문에 답이 좀 됐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더 여쭙고 싶은 것이 많긴 한데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대담을 해 주신 오무라 마스오 선생님과 최원식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원섭 선생님께서 통역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대담 <나는 왜 한국문학 연구자가 되려고 하나?>